

[종합·국제]

한나라 '쇄신 소용돌이' 이상득 침몰·이재오 부상
민주당 강경파·親盧 부활... 당 역학구조 급격 변화

■盧 전대통령 서거 한달...정치권 지형 변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거한 이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격변의 소용돌이에서 한달을 보냈다. 여권은 이른바 '쇄신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은 민주당은 당내 역학구조가 큰 변화를 겪었다.

◇한나라당=재보선 참패에 이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위기가 깊어지고 여론은 쇠퇴론으로 돌고파구를 찾았다. 소장 개혁파인 원희룡, 남경필, 권영세, 정두언 의원이 지난달 29일 박희태 대표를 만나 그의 조기 사퇴를 비롯한 당 전면쇄신을 요구했고, 쇄신투위가 호응하면서 여론 쇄신론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친박(친 박근혜) 진영이 반발하자 급속도로 힘을 잃었다.

당 쇄신투위와 소장파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본 21' 등이 당정체 인적쇄신과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친이-친박간 화합 등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쇄신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쇄신 파동의 과정에서 여론의 역학구조는 크게 바뀌었다. 정권 최고 실력자로 평가받았던 이상득 전 국회의장은 '2선 후퇴'

를 선언하며 위상이 축소됐고, 미국에서 귀국한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공간이 넓어졌다. 친이 작게는 쇄신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복잡하게 갈라졌다. ◇민주당=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민주당은 정국 운영 기조는 물론 당내 역학구조도 이념좌파가 달라지는 등 안팎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왔던 민주당이었던 장례기간에는 상주를 자임하면서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는 등 '노무현 깨안기'에 적극 나섰다. 더불어 참여정부 때 보수화의 길을 걸었던 '486', 즉 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에 입학한 세대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찍은 영남권의 개혁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4년만에 한나라당을 앞서는 상황도 연출됐다. 온건파가 서서히 우세를 점해가던 중 터진 노 전 대통령 서거는 강경파들의 득세로 이어졌고 이는 국회 등원 거부 등 여권에 대한 강경투쟁으로 이어졌다. 당내 역학구조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당장, 대선과 총선 패배에 이어 박연차 게이트의 여파로 정치적 파산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당내 친노(親盧) 그룹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친노 386'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세균 대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반면, 정동영씨의 공천문제와 정채성 논란 과정에서 현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비주류의 존재감은 약화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란 반정부 시위대들이 20일(현지시간) 테헤란 거리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시위대-경찰 충돌 13명 사망

국영 TV "폭도들 주유소 방화·군 초소 습격"

이란 정부가 강경 진압을 경고한 가운데 20일 테헤란 등지에서 벌어진 시위 과정에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폭력사태가 속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지난 20일 경찰과 이른바 '테러조직' 간의 무력 충돌로 13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이날 보도에 테헤란 시내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

음을 시사했다. 프레스TV는 또 '폭도'들이 테헤란 서부에 있는 로가르르 모스크에 방화하고 주유소 2곳을 불태웠으며 군 초소도 습격했다고 덧붙였다. 프레스TV는 애초 로가르르 모스크의 방화 사건으로 여러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가 뒤늦게 사망자는 없었다고 정정했다. 이란 관영매체가 지난 12일 대선

투표의 부정시비로 촉발된 이번 시위 사태와 관련, 사망자의 발생 소식을 전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란 매체는 지난 15일 테헤란 시내에서 시위 참가자 7명이 '바시지' 민병대가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전한 바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 19일 테헤란 대학 금요예배에서 항후 시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 이후 이란 정부는 자국 내 시위를 불법화하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내년 수도권 선거 승리 예감?

한명숙·유시민·김근태 등 서울시장·경기지사 입지자 북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벌써부터 예비 후보들로 북비고 있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엮은 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역대 지방선거에서 아군이 대부분 승리했다는 점에서 선거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시장의 경우, 노 전 대

통령 장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한명숙 전 총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아직까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공개강연을 갖는 등 향후 활발한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폭풍에 힘입어 북

침으로 뜨고 있다. 특히, 민주당적자를 갖고 있지 않은 유 전 장관의 경우, 대구 시장이나 경북 지사 선거 출마가 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유 전 장관이 각각 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맞대결을 벌일 경우 모두 승리가 가능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을 정도다. 여기에 주미애, 박영선 의원, 김한

길, 이계안, 유인태 전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힌다. 차기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되는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도 최근 주변에서 이란 당내 경기가 지지자 증가로 도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이 본격적으로 출마를 준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천시장 출신인 원혜영 의원과 김부겸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아프간 피랍 NYT기자 7개월만에 탈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돼 파키스탄에 억류돼 있던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7개월 만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NYT는 자사 데이비드 로드(41) 기자와 아프간인 타히르 루딘 기자가

파키스탄 북와지리스탄의 무장세력 은거지에서 담을 타고 넘어 탈출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NYT는 이들이 순찰 중이던 파키스탄군에 발견된 뒤 아프간 바그람의 미군기지로 후송됐다고 덧붙였다.

로드 기자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대변인인 크리스틴 사일버스트리커 소령은 이번 사건에 군 개입은 없었다고 전했다. 로드 기자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아프간 개입에 대한 책을 저술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현지 기자, 운전사와 함께 탈레반 사령관을 만나러 카불 인근 로가르르 주(州)에 갔다 피랍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various tours including '남해관광 남도그린투어', '골프투어', '홍도·흑산도 투어', and '제주 웰빙투어(고품격)'.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ices for different packag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셋코리아'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es contact numbers and addresses for different branch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 Public Broker)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Sangmu Land Public Broker)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hindong Sang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